

[2026학년도 제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6년 7월 30일(목), 11:00 ~ 12:00	장소	(전주캠퍼스) 문화관 영상회의실(503호)
참석위원	(위원장) 김홍준, (위원) 황재식, 신태용, 이창수, 최주호		
불참위원	없음		
간사	기획팀장 김대용		
배석	기획팀 이현영		
상정안건	개방이사 추천 후보자 선출에 관한 건		
회의 내용(논의 및 표결 내용)			
1. 개회 및 경과 보고(11:00)			
○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6학년도 제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개회를 선언함.			
○ 이어 간사는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개방이사 유고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후임 선임 추천이 요청 (2026. 07. 13.)되었음을 알리고, 지난 추천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포털과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나 접수된 인원이 없었음을 보고함.			
2. 안건 상정: 개방이사 추천 후보자 선출 건			
○ 위원장이 공모 지원자가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법인 요청일로부터 지정된 기한(2026. 08. 11. 限) 내에 반드시 2배수(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함을 공표함.			
• 후보자 추천 및 의견 수렴: 추천위원회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개방이사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함. 황재식 위원이 다음 2인을 추천하며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원장은 다른 추천 후보자가 없음을 확인하여 아래 2인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후보 1] 김 정 (이사 겸 기획실장)			
- 추천 사유: 언론·문화 산업의 현장과 학계를 두루 경험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법인과 대학의 발전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됨.			
[후보 2] 서 두 (이사)			
- 추천 사유: 대학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른 경영을 이끌어 낼 최적의 책임자로 법인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자격 및 결격 사유 검토: 추천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 일반 결격 사유) 및 「우석학원 정관」 제24조의 2(개방이사 당연 결격 사유)를 바탕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정밀 심사를 진행함. 설립자 및 친족 관계, 우석학원의 전직 임원(개방이사 제외) 또는 학교장 역임 여부 등 법적 선임 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엄격히 대조 확인함.			
• 적격성 심의: 추천위원회는 두 후보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력을 심층 검토함.			
- 김 정 후보자의 ,에서의 오랜 활동 및 전북 지역 각종 문화·예술 위원회 운영위원 등 언론·문화계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네트워크			
- 서 두 후보자의 공인회계사 및 이사 역임,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전라북도청 지방세심의위원 등 재무 및 감사 관련 풍부한 전문 경력			
- 심의 결과 두 후보 모두 우석학원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고 대학 주요 정책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점에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함.			

3. 의결 및 결정 사항: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결정 사항] 개방이사 추천 후보자 2배수(2인) 추천 확정:

김 정(. /)

서 두(. /)

4. 폐회 선언 (12:30)

○ 위원장이 금일 선출된 2배수 후보자를 법정 기한인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법인 이사회에 추천 완료할 계획임을 안내하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폐회를 선언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6. 7. 30.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김홍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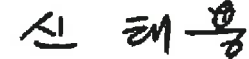
위원

황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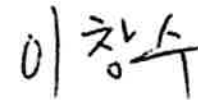
위원

신태용



위원

이창수



위원

최주호

